이승혜의 그녀, 붓다를 만나다 ㉑ 개금불사로 드러난 나인의 발원

▶한줄 요약
순천 송광사 관음전의 목조관음보살좌상 개금 불사 과정에서 발견된 복장물은 나인 노예성의 삶과 깊은 불심을 여실히 전해 준다.



저고리가 품은 궁녀의 불심

〈佛心〉

궁녀(宮女)는 궁중에서 제왕과 그 가족을 시중하고 각종 사무와 살림을 맡았던 여성 관리를 일컫는다. 궁 안에서 일하는 관리이기에 궁관(宮官), 여성의 몸으로서 녹봉을 받는 관리이기에 여관(女官)이라고도 불렸다.

궁녀는 어린 나이에 입궁해 체계적인 교육을 받고 궁궐의 각 처소에 배치돼 왕실의 일상생활을 책임졌다. 그뿐만 아니라, 궁녀는 왕실 식구들의 종교 생활에서도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들은 왕실의 명을 받아 도성 안 구중궁궐과 심산유곡의 사찰을 왕래하며 불사의 매개자로서 활약하는 한편, 규제와 금기 속에 살아가는 삶의 고단함을 부처님께 귀의해 달래는 경우가 많았다.

지난 2009년에 순천 송광사 관음전 목조관음보살좌상의 개금(改金)을 준비하던 과정에서 발견된 복장물(腹藏物)은 역사에 기록되지 않은 한 궁녀의 생생한 삶과 깊은 불심(佛心)을 여실히 전해 준다.

성수전에서 관음전으로

순천 송광사 대웅전의 왼편에는 관음전이라는 3칸 규모의 아담한 전각이 있다. 그런데 1903년(고종 40) 건립된 이 건물이 처음부터 관음전이라 불린 것은 아니다.

이 전각은 본디 1902년 고종의 성수(聖壽, 임금의 나이)가 망육(望六, 51세)에 이르자 기로소에 입소한 것을 축하하기 위해 건립된 성수전이었다.

기로소(耆老所)는 조선 시대에 나이가 많은 고위 문관을 예우하기 위해 설치한 기구다. 정2품 이상의 관직을 제수하고 70세가 넘은 이들만 기로소에 입소할 수 있었다. 조선 시대에는 장수한 임금이 드물었기 때문에 국왕의 경우에는 특별히 기준을 낮춰 환갑인 60세를 넘으면 기로소에 입소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 이르면 이 요건마저도 충족하기 어려울 정도로 국왕이 단명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에 따라 숙종과 영조는 60세가 되기 전에 앞당겨 들어갔고, 고종은 신하들의 건의에 따라 51세가 되던 1902년(고종 39) 기로소에 입소했다.

불과 12살에 왕위에 올라 생명과 나라를 위협받는 등 온갖 수난을 겪어 온 고종의 기로소 입소는 모두가 경하할 나라의 잔치였다. 고종은 송광사에 직접 '성수전(聖壽殿)'이란 편액을 내려 자신의 성수망육을 기념했다. 비록 아담한 규모이지만 전각 내부가 황실 기도처라는 성격에 걸맞게 꾸며진 이유이다.

불전 중앙 칸의 불단 위에는 본래 임금을 상징하는 전패(殿牌)를 봉안했고, 후벽 좌우에는 각각 황제와 황후를 상징하는 해와 달을 그렸다.

불전 내부의 나머지 벽면도 일반 사찰 벽화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주제를 그려 장엄했다. 상하로 구획한 벽면 하단에는 정1품 이하의 고급 관료들이 양손으로 홀(笏)을 들고 경하드리는 모습을 표현했다.

성수전의 성격은 그 앞쪽에 자리 잡고 있던 관음전이 퇴락해 무너질 위기에 처하면서 바뀌게 됐다. 1957년에 퇴락한 관음전을 해체하면서 관음보살좌상을 성수전으로 옮겨 봉안하고 전각의 이름을 관음전으로 고쳐 부르게 됐다.

저고리에 적은 발원

관음보살좌상의 개금 불사 와중에 발견된 복장물은 이 상이 조선 왕실과 맺은 두터운 인연을 드러냈다.

2009년의 조사에서 불보살의 심장에 해당하는 후령통(喉鈴筒) 외에 의류, 발원문, 직물 조각, 전적과 인쇄본 다라니, 유리편 등 모두 556점의 복장물이 발견됐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발원문이 적힌 남색의 명주 저고리다. 겉감의 깊이 있는 쪽빛과 아름다운 대비를 이루는 소색(素色) 안감 위에는 '관음조상발원문(觀音造像發願文)'이 먹으로 적혀 있다. 이를 통해 이 불상이 1662년(현종 3) 정월에 조성됐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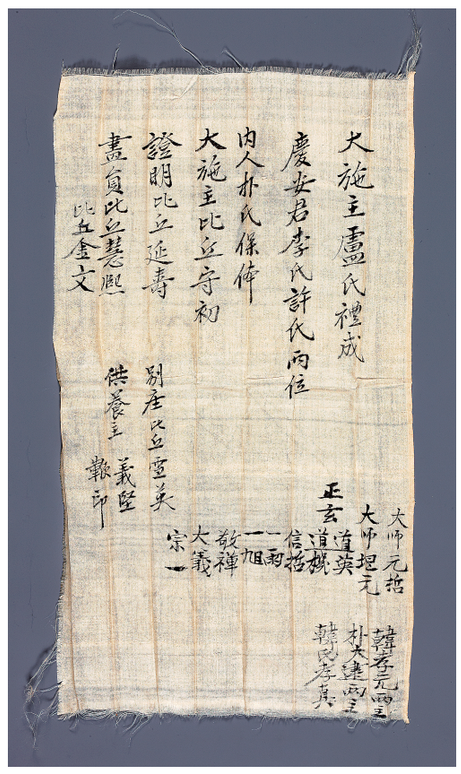
불상의 대시주(大施主)인 나인 노예성(盧禮成)은 신축생(辛丑生, 1601년)으로 당시 이미 62세에 접어든 노년이었다. 자비와 자애를 두루 갖추신 관음보살님께 그녀가 가장 먼저 빈 것은 경안군(慶安君) 부부의 장수였다.

경안군은 소현 세자(昭顯世子, 1612~1645)의 셋째 아들 이석견(李石堅, 1644~1665)에게 내려진 군호이다. 병자호란 이후 청에 볼모로 들어갔던 소현 세자는 9년 만에 귀환했으나 부왕 인조(仁祖)와 갈등을 겪었다. 그는 조선에 돌아온 지 2달 만에 병석에 누웠고 곧 급서했다. 이후 인조는 세자빈인 민회빈 강씨(愍懷嬪 姜氏, 1611~1646)가 역모를 꾸몄다고 하여 그녀를 사사하고 친족들도 몰살시켰다.

소현 세자와 민회빈의 세 아들은 제주도로 유배됐다. 장남 경선군(慶善君) 이석철(李石鐵, 1636~1648)과 차남 경완군(慶完君) 이석린(李石麟, 1640~1648)은 1년도 안 돼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막내아들인 경안군만이 8년에 걸친 험난한 귀양살이를 버텨 내고 살아남았다. 그는 방면된 후에도 여러 고초를 겪었으나 장성하여 1661년에는 허씨와 혼인하는 경사를 맞이했다.



송광사 관음전 목조관음보살좌상, 조선 1622년. 사진=국가유산청



송광사 목조관음보살좌상 발원문, 조선 1622년, 명주에 먹, 41.0×23.0㎝. 사진=송광사성보박물관



송광사 목조관음보살좌상 복장 저고리, 조선 1662년, 명주, 81.0×223.8㎝. 사진=송광사성보박물관

노예성이 불상을 조성한 공덕을 경안군에게 회향한 것으로 보아 그녀는 소현 세자 내외를 가까이서 모시며 왕자들을 돌봤던 나인으로 짐작된다. 본인은 비록 장수해 환갑을 넘겼지만, 윗사람들의 비극적인 생애를 지켜봤을 그녀가 관음보살상을 조성하며 경안군 부부의 장수를 빌었던 까닭이 여기에 있다.

이어서 노예성은 동료 나인으로 짐작되는 경자생(庚子生, 1600년) 박씨와 노씨의 장수를 빌고, 윤씨의 건강과 수명장수를 빌었다. 궁녀들이 이르게는 네다섯 살, 늦게는 열네댓 살에 입궁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노예성과 이 궁녀들은 수십 년에 걸쳐 동고동락하며 지냈던, 피붙이보다도 가까운 자매이자 동지들이었을 것이다.

이처럼 불상 안에 의류를 봉안하거나 의복에 발원문을 적는 풍습은 고려 시대부터 확인된다. 조선 중기의 왕실 여성 중에서는 광해군의 정비인 장렬 왕후(章烈王后, 1576~1623)가 불사에 여러 차례 의복을 시주한 바 있다.

그중 1622년(광해군 14)에 자수사(慈壽寺)와 인수사(仁壽寺)를 위해 발원했던 불상 안에 왕후 본인의 저고리를 시주했던 경우가 있다. 안동 선찰사(仙刹寺)의 목조석가여래좌상이 그것이다.

이 불상의 복장에서 발견된 저고리의 안깃 안감에는 "병자생 왕비 류씨의 장수를 기원하는 옷(丙子生王妃柳氏命衣)"이란 묵서명이 있다. 이를 통해 17세기 조선 왕실에서는 수명장수를 빌며 그 사람의 저고리를 불복장에 공양하는 신앙을 행했음을 알 수 있다. 나인 노예성 역시 궁중 여성들의 불사 전통을 따라 저고리 주인의 장수를 기원하며 이 남색 저고리를 시주했을 것이다.

관음조상발원문이 적힌 남색 명주 저고리는 입지 않은 새 옷이다. 아마도 노예성이 경안군이나 그의 부인 허씨를 위해 새로 저고리를 지은 후 불상 안에 공양했을 가능성이 크다.

저고리 뒷길 안쪽의 발원문과 더불어 저고리의 좌우 앞길 안쪽에 붉은색으로 찍은 보협인다라니(寶篋印陀羅尼)가 눈길을 끈다. 〈보협인다라니경〉에서는 불탑이나 불상 안에 보협인다라니를 봉안하면 일체의 여래가 그곳을 가지하고 수호해 줄 것이라 약속한다. 1662년에 관음보살좌상의 복장을 준비했던 이들은 〈보협인다라니경〉에서 약속한 것처럼 다라니의 힘으로 저고리의 주인이 무탈하기를 바라며 저고리 가장 안쪽에 다라니를 찍었을 것이다.

이 외에 흰색의 비단에 별도로 적은 발원문에도 노예성과 동참 발원자들의 이름이 재차 적혀 있다. 여기에는 송광사의 취미수초(翠微守初, 1590~1668) 스님을 비롯해 불사에 참여한 여러 스님의 소임과 이름도 기록돼 있다. 복장물 중 초록색 배자에도 분홍 안감 위에 시주자 류씨의 무병장수를 비는 발원문이 쓰여 있다. 이 배자의 안쪽에도 붉은색으로 다라니를 찍어 넣어 옷의 주인을 상징적으로 보호하는 의미를 더했다.

복장이 전하는 이야기

많게는 500~600명에 이르렀다는 조선 시대 궁녀들의 삶, 그녀들의 마음을 전하는 기록은 매우 드물다. 궁중 안의 일이 바깥에 새어나가지 않도록 엄격히 단속했던 정황을 생각하면 오히려 당연한 일이다.

송광사 관음전 목조관음보살좌상의 복장물은 역사에 기록되지 않은 어느 궁녀의 지극히 간절한 마음을 우리에게 내어 보인다. 비록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을 위해 시작한 불사였으나 그 공덕은 우리 곁에 모습을 나툰 관음보살좌상으로 남아 모든 중생을 위무해 준다.

〈동아대 역사문화학부 교수〉



윤인수 원장 연구개발

겨우살이환

재료명: 겨우살이, 느릅나무뿌리껍질, 도라지, 더덕, 모과, 천문동, 맥문동, 비파잎, 삼백초, 뽕나무뿌리껍질, 둥굴레뿌리, 무화과, 탱자, 대추, 산사나무열매, 맥아
비염이 있습니까? 숨이 차십니까? 기침,가래가 힘드십니까? 천식에 힘드십니까?

여 주 환

재료명: 여주, 돼지감자, 바나바잎, 민들레, 복분자, 옥수수수염, 오미자, 구기자, 천문동, 창출, 뽕나무뿌리껍질, 음나무줄기, 독활, 작약, 칡뿌리, 감초, 산사나무열매, 맥아
당뇨 있으신 분 혈당수치관리에 좋습니다. 다이어트가 필요하신 분은 꼭 드세요.

전복껍데기환[석결명 스틱]

재료명: 전복껍데기, 마리골드, 국화, 민들레, 엉겅퀴, 백작약, 다시마, 톳, 산사나무열매, 맥아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당뇨망막병증 등 눈에 문제가 생기면 석결명환으로 해결하세요. 세종대왕께서도 드셨다고 세종실록에 나와 있습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도 제주도 유배시 석결명환을 드셨다고 방송되었습니다.

폐청소법, 치매·중풍 예방법 등 성인병에는
윤인수 원장의 경혈자극요법을 활용하세요.
기침, 가래, 기관지염, 비염, 폐렴, 기관지폐렴, 폐 화농증, 편도선염, 축농증, 천식, 불면증, 수면장애, 어지럼증, 두통, 이명(귀울림), 구안와사, 조현병, 협심증, 위염, 위경련, 변비, 어깨·관절통증, 발목관절통증, 오십견, 목이 쉬었을때, 전립선 질환, 요실금, 콩팥 위축, 방광염, 신장염, 황달, 간경화, 피부가려움증, 다이어트, 생리불순, 백내장, 각막염, 결막염, 녹내장, 황반변성, 야맹증, 원형탈모증, 삼차신경통(상지, 중지, 하지) 등


전화주시면 간략하게 설명드립니다

골담초환

재료명: 골담초분말, 쇠무릎뿌리, 황칠나무, 두충, 가시오가피, 참당귀, 울금, 덩이뿌리, 쇠비름, 독활뿌리, 개다래열매, 천마뿌리, 율무, 질경이, 음나무줄기, 왕느릅나무껍질, 엉겅퀴, 산사나무열매, 맥아
허리, 다리가 불편하십니까? 오래 걷기 힘드십니까? 계단 오르기 힘드십니까?

산수유환

재료명: 산수유, 호박씨앗, 옥수수수염, 복분자, 사상자, 토사자, 구기자, 오미자, 천궁, 우슬, 복령, 산청목, 질경이, 뽕나무뿌리껍질, 두충, 산사열매, 맥아
소변때문에 밤에 몇번씩 일어나십니까?

어성초환

재료명: 어성초, 적하수오, 자소엽, 측백나무잎, 서목태, 원지, 우슬, 천문동, 마가목열매, 복분자, 솔잎, 뽕나무뿌리껍질, 녹차잎, 창출, 구기자, 산사나무열매, 맥아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십니까?

하지·아이케어센터 | 구입문의 : 02-969-9007 / HP.010-3245-0118
농협 : 301-0234-9633-61 / 예금주 : 윤제하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얼과혼이담긴 우리민족의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민속죽염 ◈

가루자죽염	125g	45,000원
가루자죽염	230g	82,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50,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90,0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9,000원

◈ 2번 구운 민속죽염 ◈

◆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20,000원
	250g	10,000원

※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길381-4 www.msjy.co.kr